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전기용품 지정시험기관 지정

공업진흥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6조(지정시험기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용품 지정시험기관을 지정(추가)하고 이를 공고(공업진흥청공고 제1993-788호, 1993. 6. 29)했다.

1. 시험기관 :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대표이사 강진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3-17
3. 지정구분
 - 점열기 및 접속기(단락차단성능시험을 요하는 전기용품 제외)
 - 소형교류전동기 및 휴대발전기

新規會員 加入 案内

會社名	代表者	住 所	TEL	主生産品目
서울엔지니어링 産業 (株)	黃金性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0 부봉 B/D 303호	(02) 557-07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Power Supply • Power Electronic 응용장치 • 전동기 제어기기류
三昌企業(株)	李斗哲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1-39 정남 B/D 5층	(02) 561-193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기기제조

◆ KOEMA 消息 ◆

南美 電機工業 수출시장 개척단 모집

◦ 최근 남미지역은 사유화 정책에 따른 시장경제 도입과 인플레이의 안정으로 공업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 대규모 발전설비 및 기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전기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韓國電機工業振興會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현지 전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전기공업계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南美 전기공업 수출시장 개척단을 모집하오니 회원업체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남미지역의 중전기 현황 및 전기공업 수출시장 조사
- 상대국 구매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
- 현지업체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 국내 중전기 현황 소개 및 기술교류 창구 마련
- 현지업체의 기술협력 및 현지 진출에 따른 설비투자 환경 조사

나. 개척단 개요

- 명칭 : 남미 전기공업 수출시장 개척단
- 방문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 파견기간 : '93. 10. 6~10. 18 (13일간) (※ 추진 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 모집인원 및 대상
 - 인원구성 : 10개사 15명 내외
 - 파견대상 : 업계, 상공자원부, 진흥회

다. 개척단 주요 활동

- 국내 전기공업 현황 소개 및 수출상담회 개최
- 남미 전기공업 시장 현황 및 향후 동향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 전기공업분야의 기술협력방안 협의
- 상대국 전기기자재 수요기관과 국제입찰 및 구매계획 상담
- 생산공장 및 연구기관 시찰로 기술수준 및 생산체계 파악
- 현지업체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환경 조사
- '94 전기기기 종합 국제전 홍보

라. 소요경비 : 추후 결정 통보

마. 참가신청 및 기간

-참가신청 : 진흥회 소정 참가 신청서

-신청기간 : '93. 7. 20~'93. 8. 2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本 振興會 국제과 (TEL : 424-4901/4, 담당 : 박병일 대리)로 문의

'93年度 第2次 機械類·部品·素材 國産化 對象課題 접수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93年度 機械類·部品·素材 國産化事業 運用要領(商工部 告示 第'92-9號 '92. 3. 28)에 의거 기계류·부품·소재 대상과제를 발굴키 위하여 重電業界로 부터 과제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대상과제는 7월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있어 業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접수된 과제는 振興會내에 설치되어 있는 “電氣機器 國産開發 協議會”의 심의를 거쳐 '93년도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대상과제로 선정, 商工資源部에 8월초 告示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發掘, 選定된 課題가 商工部로부터 告示되면 工業發展基金, 中小企業 構造調整資金, 産業銀行 技術開發資金등 각종 정책자금 취급기관으로 부터 國産化에 필요한 試製品 開發資金 및 生産에 필요한 設備資金등의 支援을 받게 된다.

“電機工業” 명예기자 제도 운영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회원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파악, 진흥회 활동에 대한 비판과 자문 등의 활동을 할 “電機工業” 명예기자 제도를 운영코자 지난 7월 1일 金星 産電(株)등 15개사 15명을 명예기자로 위촉하였다.

주요 업종별 주력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 위촉된 명예기자들은 앞으로 자사의 기술개발 동향이나 행사 등의 홍보내용을 수시로 제보해 주는 기능과 함께 경쟁업체 및 동종업체 소식과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통보해 주고 특히 진흥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과 발간자료에 대한 비판·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電機工業” 명예기자 명단 (표 3)